

CEO Information

2010. 6. 2. (제758호)

2010년 하반기 세계경제의 명과 암

목차

I. 비관과 낙관이 교차하는 세계경제

II. 하반기 세계경제의 명과 암

1. 세계경제의 마이너스 요인

2. 세계경제의 플러스 요인

3. 종합평가

III.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작성 : 구분관 수석연구원(3780-8140)
bkkoo@seri.org
곽수중, 엄정명, 박현수 수석
신창목, 이종규, 권혁재 수석

《 요약 》

2009년 2/4분기 이후 세계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發 재정 위기의 확산으로 더블 딥 우려가 제기되는 등 낙관과 비관이 교차하고 있다.

2010년 하반기 세계경제 흐름에 있어서의 부정적 요인으로는 다음을 지적할 수 있다. ① **유로지역의 경기침체**이다. 구제금융 패키지 지원으로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의 강력한 재정긴축이 불가피해 경기침체와 유로 회원국 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② **글로벌 신용경색이 재연될 가능성**이다. 유럽 금융기관의 부실 확대와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규제 강화가 신용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 자기자본비율 감독기준이 8%에서 12%로 4%p 상승할 경우 대출은 연 1.2%, 4년간 총 4.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신흥국에서 자금이 유출되면서 신흥국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 ③ **총수요가 위축된 상태에서 가해질 재정부문의 출구전략 압력**이다. 그리스發 재정위기로 재정부문 출구전략의 필요성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실물경제의 회복이 지연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세계경제 흐름의 긍정적 요인은 다음과 같다. ① **중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이다. 중국경제는 금리인상 등 금융긴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거품붕괴 가능성이 높지 않은 데다 정부의 경기부양책 지속으로 건실한 성장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② **미국경제의 회복세 지속 가능성**이다. 미국은 신용경색 완화, 소비지출 개선, 주택판매 회복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③ **국제공조시스템과 관리통화제의 힘을 들 수 있다**. 세계는 관리통화제도하의 재량적인 통화정책 운용과 국제공조체제 가동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세계경제가 재침체에 빠지는 더블 딥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위기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며 하반기로 갈수록 둔화되는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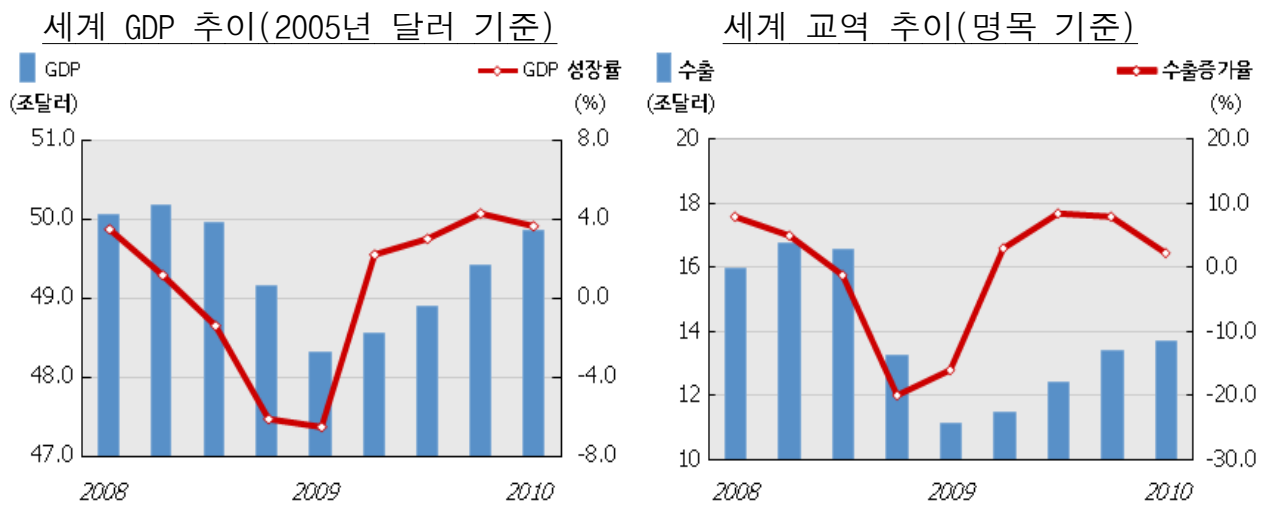
향후 세계경제 흐름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① **환율불안은 부정적이지만 환율상승은 한국경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② **교역조건에 대한 영향은 중립적**이다. 일시적인 원화가치 하락이 교역조건을 악화시키지만,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이 교역조건 악화를 완화시킬 것이다. ③ **對EU 수출 감소는 미국, 중국 등의 경기 회복세가 일부 보완할 수 있다**. 2010년 EU의 성장률이 1%p 하락하더라도 그 외 주요국의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는 한, 한국수출은 약 63억달러 감소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이는 한국 명목GDP(8,329억달러)의 0.8% 수준으로 한국경제가 감내할 만한 수준으로 보인다. 세계경제의 부정적 요인이 한국경제의 더블 딥을 발생시킬 만한 위협요인은 아니나 국내 금융 및 외환 시장의 불안 확대와 수출의 감소 통해 경기흐름의 上高下低 현상을 심화시킬 가능성은 상존한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불안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거시정책 운용의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I. 비관과 낙관이 교차하는 세계경제

칼날 위에 선 세계경제

□ 2009년 2/4분기 이후 세계경제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회복됨에 따라 2010년 들어 경제흐름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형성

- 대규모 재정지출, 금융완화, 소비진작책 등의 정책효과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세계교역도 빠르게 증가
- 이에 따라 주요 경제예측기관들도 2010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
 - 2009년 10월 시점에서 2010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1%로 전망했던 IMF는 2010년 1월과 4월 시점에서 전망치를 각각 3.9%와 4.2%로 잇달아 상향 조정



- 선진국이 국별, 지역별 회복속도에 큰 편차를 보이며 완만한 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신흥국은 경제성장이 가속화되어 세계경제를 견인
 - 2009년 2/4분기~2010년 1/4분기 분기별 평균 GDP 성장률(전기 대비 연율): 1.9%(선진국), 6.7%(신흥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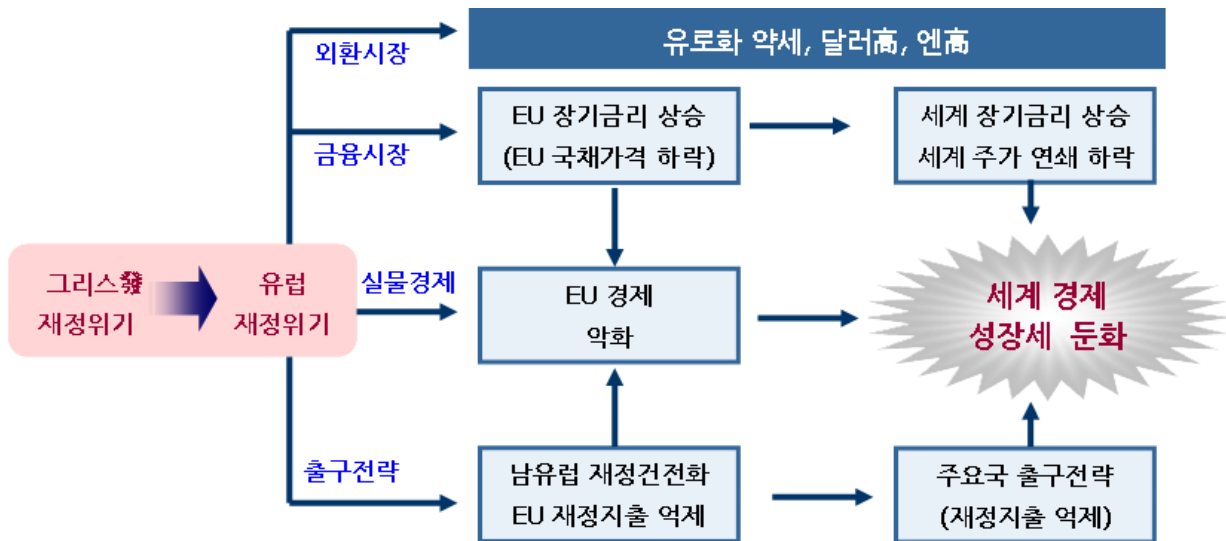
□ 최근 그리스發 재정위기로 비관론이 급부상하면서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의문이 제기

- 그리스發 재정위기가 포르투갈, 스페인 등으로 파급될 조짐을 보이면서 글로벌 금융불안을 야기

· EU-IMF 공동의 대규모 지원 계획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

· 글로벌 금융위기의 탈출과정에서 각국의 재정상태가 크게 악화될 만큼, 재정불안은 여타 선진국으로도 확산될 가능성

그리스發 재정위기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하고 있어 세계경제 향방을 가늠하기 힘든 상황으로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식별하고 그 영향을 점검할 필요

- 낙관론은 그리스發 재정위기가 '찾잔 속의 태풍'이라는 입장¹⁾

- 비관론은 유럽 재정위기, 글로벌 금융불안 등으로 세계경제가 더블 딥에 빠질 것이라는 '둠스데이(doomsday) 시나리오'를 강조²⁾

¹⁾ 그리스發 재정위기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은 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어 EU-IMF 구제금융 패키지 등 국제공조체제의 작동으로 조만간 수습될 것이라는 입장

²⁾ 모건 스탠리의 스티브 로치는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세계경제의 더블 딥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발언 (Roach Says Debt Crisis Raises Risk of 'Double Dip' Recession.(2010. 5. 10.). Bloomberg.)

Ⅱ. 하반기 세계경제의 명과 암

1. 세계경제의 마이너스 요인

- ① 유로지역의 경기침체: 세계교역 감소를 야기시켜 경기흐름이 위축
- ② 글로벌 신용경색 재연: 금융부실 확대 우려, 신흥국 금융불안 야기
- ③ 총수요 위축과 재정부문의 출구전략 압력: 실물경제 회복 지연

(1) 유로지역 경기침체

시장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긴축재정을 추진

□ 구제금융 패키지로 그리스 디폴트, 유로 회원국의 탈퇴, 유로화 붕괴 등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으나, 지원 전제조건인 강력한 긴축재정 조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구제금융 패키지(7,500억유로 규모)의 세부내용이 확정되어 집행될 경우 최악의 국면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³⁾

- 그러나 재정위기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시장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 구제금융 패키지의 신속한 집행에 대한 불확실성, 개별 회원국의 긴축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의구심, 2010년 3/4분기에 집중된 국채만기 도래 등 시장의 불안요인이 상존

- 남유럽 국가는 상당기간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

· 향후 4~5년간 재정적자를 3% 이내로 감축할 계획: 그리스(2014년), 포르투갈(2013년), 스페인(2013년)

³⁾ 7,500억유로는 향후 3년간 PIGS 4개국이 재정적자 보전 및 국가채무 상환을 위해 필요한 총자금 7,450억유로를 상회

재정위기 여파로 실물경기 침체와 양극화 심화가 예상

- 강력한 긴축재정 조치로 인해 투자와 소비가 침체되고, 유로지역의 국가채무위험(Sovereign risk) 증가로 인해 유로화 약세기조가 지속
 - 재정불안 해소를 위한 긴축재정이 시행되면서 2010년 유로지역의 투자와 소비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총투자는 1.9% 감소, 민간소비는 0.2%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
 - 재정위기의 여파로 유로화는 당분간 약세 기조를 유지
 - 2010년 5월말 현재 달러 대비 유로화의 가치는 2009년 12월초⁴⁾에 비해 18.4% 하락
- 남유럽 국가 중심의 긴축재정 조치와 유로화 약세 기조로 회원국 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유로화 약세 기조는 독일·프랑스 수출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
 - 유로 환율은 남유럽 회원국에게는 高평가, 서유럽 회원국에게는 低평가된 수준에서 형성
 - 서유럽과 남유럽의 경제적 격차가 더욱 확대되어 유로지역의 단일 통화권 기반이 더욱 취약해질 전망

2010년 경제성장률 및 경상수지 예상치 비교

(단위: %)

구분	서유럽			남유럽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경제성장률	1.2	1.2	1.3	-3.0	0.5	-0.4
경상수지	4.8	-3.3	5.9	-10.3	-10.1	-4.6

주: 경상수지는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

자료: Eurostat

⁴⁾ 그리스 재정위기가 본격화되기 직전 시점

재정위기 여파는 글로벌 경기회복에도 악영향

- 재정위기에 따른 유로지역의 경기침체와 양극화 심화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
 - 유로지역의 경기침체는 미국, 중국 등 여타 주요 경제권의 수출에 의한 경기회복을 저해할 가능성
 - 2009년 중 미국과 중국의 수출에서 對유럽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4.5%와 19.1%
 - 양극화 심화는 재정위기의 확산 방지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
 - 재정위기→ 실물부문의 침체 및 유로화 약세→ 양극화 심화→ 재정위기 사태 심화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 요인
 - 경제력 격차와 이로 인한 양극화 심화가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여 사태를 장기화시킬 가능성

(2) 글로벌 신용경색 재연

재정위기로 유럽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이 위축

- 재정위기가 제2의 금융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지만, 유럽 은행은 재정위기에 따른 손실이 추가됨에 따라 건전성이 더욱 약화될 우려
 - EU와 IMF의 공동대응으로 재정위기가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비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
 - 대규모 구제금융과 EU의 국채보증계획 등으로 국채의 원금부도 발생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금융시스템의 붕괴 위험도 희박

- 그러나 금융위기 충격으로 유럽 은행의 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전망
 - 위기 이전에 비해 부실채권 비율이 크게 상승한 반면, 총당금적립 비율은 급락해 자산건전성이 악화되고 손실 대처능력도 저하

유럽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 및 총당금적립 비율

(단위: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부실채권비율	2.74	2.64	2.52	2.38	3.26	5.37
총당금적립비율	69	59	58	57	47	40

자료: Spick, M. & Vandamme, B. (2010.3.24.). European Banks strategy. Deutsche Bank.

- 대외채무의 상호의존도가 높은 유럽에서의 재정위기는 유럽 금융기관의 신용공급능력을 위축시켜 유로지역의 경기회복을 저해
 - 재정건전화에 대한 부담이 높은 남유럽 국가의 경우 금융의 상호 의존도가 특히 높은 편
 - 2009년 말 현재 유로지역 대외 은행채무의 67.2%, 남유럽 4개국 대외 은행채무의 75%를 유럽 은행이 보유⁵⁾
 -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가 표면화됨에 따라 국채의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 금융기관의 국채보유분에 대한 평가손실이 증가
 - IMF는 금융위기 이후 2010년까지 유로지역 은행의 총손실을 6,650억 달러로 추정⁶⁾
 - 재정건전성 강화에 따른 경기하락 위험을 낮추기 위해 채무재조정을 실시할 경우 금융기관의 손실은 더욱 확대⁷⁾

⁵⁾ 특히 프랑스와 독일 은행의 비중이 높는데, 유로지역 대외 은행채무 중 16.8%를 프랑스 은행이, 12.6%를 독일 은행이 보유. 남유럽 4개국 대외 은행채무는 프랑스 은행이 27.6%, 독일 은행이 16.95%를 보유(BIS, Consolidated Banking Statistics.)

⁶⁾ 보유채권의 만기를 2년으로 가정할 경우 시장금리가 2%에서 3%로 1%p 상승하면 채권의 평가액은 약 2.9% 감소하는데, 이 경우 유로지역 은행의 PIGS 국가에 대한 채권액 3.1조달러(2009년 말)의 평가손실은 약 596억달러로 추정(다만, 은행이 보유한 채권 중 시가평가 대상이 아닌 대출 등의 자산이 있으므로 회계상의 평가손실 규모는 이보다 작을 수 있음)

⁷⁾ 채무재조정은 국채 발행국의 신용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방만하게 투자한 금융기관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도 있음

□ 신용경색 재발로 유로지역의 경제성장 둔화 및 재정건전화 지체가 우려

- 유럽 재정위기가 표면화된 이후 유로지역의 회사채 발행이 급감하는 등 신용경색이 재연되는 조짐

· 유럽 기업의 회사채 발행은 2010년 3월 583억달러에서 4월에는 285억달러로 급감⁸⁾

- 신용경색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의 가계와 기업 등 민간부문의 회복과 경제성장을 저해하여 재정건전화의 어려움을 가중

· 재정악화로 정부 주도 경제성장이 어려워지고, 조세수입 감소로 더욱 강도 높은 재정긴축이 불가피해져 성장둔화가 초래되는 악순환이 발생

금융규제 강화 움직임도 신용공급을 위축시키는 요인

□ 주요국 및 국제기구가 추진 중인 금융규제 강화 방안은 금융기관의 신용공급 능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국제결제은행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추진 중인 자기자본규제 강화, 레버리지 비율규제 도입 등은 은행의 자산확대를 제약

· 영국의 은행은 새로운 유동성 및 자본규제로 자산규모를 6~18% 감축해야 할 것으로 추정⁹⁾

· 자기자본비율 감독기준이 8%에서 12%로 4%p 상승할 경우 대출은 연 1.2%, 4년간 총 4.8% 감소¹⁰⁾

⁸⁾ "금융위기로 유럽 기업 '돈 줄 마른다'". (2009. 5. 25.). 『이코노믹리뷰』. 유럽 부채위기가 2008년 10월보다 더 심각한 신용경색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도 대두(Europe Debt Crisis May Be as Grave as Credit Crunch, BofA Says. (2010.5. 20.) *Bloomberg.*)

⁹⁾ U.K. Banks May Need to Cut Assets by \$792 Billion, Pierce Says. (2010.3.9.). *Bloomberg.*

¹⁰⁾ 자기자본 비율이 1%p 상승하면 대출은 4년에 걸쳐 1.2% 감소(Francis, W. & Osborne, M. (2009). Bank Regulation, Capital and Credit Supply: Measuring the Impact of Prudential Standards (Occasional Paper Series 35). UK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 보통주 자본비율 규제에 따른 자본비용 상승은 대출금리 인상을 초래
 - 은행세 도입, 위험투자 규제 등도 신용공급 위축 요인으로 작용
 - 자산규모에 비례하여 은행세를 부과할 경우¹¹⁾, 은행은 대출 등 신용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가 곤란
 - 재유동화 증권에 대한 자본규제 강화는 유동화를 위축시켜 신용 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을 감소
- 대부분의 금융규제가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2010년 하반기 이후 금융규제에 따른 신용공급 위축 효과가 가시화될 가능성
-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자기자본규제 강화방안의 영향을 2010년 상반기 중 검토하여 구체적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
 - 경기상황에 따라 규제 시행이 연기될 수 있지만 금융기관이 미리 이에 대응함으로써 신용공급 위축이 조기에 나타날 수 있음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이 고조될 우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 자금유입이 급격히 위축되었으나 2009년 하반기부터 자금유입이 재개되고 있는 상황
- 선진국 경제의 부진으로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실한 신흥국에 대한 투자가 확대
 - 직접투자나 은행대출보다는 투자 및 자금회수가 용이한 포트폴리오 투자 중심으로 자금유입이 증가

¹¹⁾ IMF는 은행 자산에 대해 부과하는 '금융안정부담금'을 은행세의 기본방안으로 제안

- 브라질은 외국자본 유입에 따른 주식시장 과열 및 헤알화 평가절상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10월 20일 외국인 투자자에 2%의 거래세를 부과

신흥국으로의 민간자금 순유입 추이

(단위: 억달러)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직접투자	5,055	3,466	4,349
포트폴리오 투자	-847	1,192	939
은행대출	331	-319	489
비은행	1,344	969	1,309
소 계	1,074	2,715	2,645

주: 2009년은 추정치, 2010년은 전망치

자료: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2010. 4. 15.). Capital Flows to Emerging Market Economies.

□ 유럽의 재정위기, 금융규제 강화 등으로 선진국 금융기관의 신용경색이 심화될 경우 신흥시장에서 자금을 다시 회수할 가능성

-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미국 금융기관은 신흥시장에서 대규모 투자자금을 회수하여 신흥국 금융위기를 촉발

- 자금유출로 신흥국의 통화가치와 주가가 20~40%까지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일대 혼란에 직면

- 2008년 7~8월 단기간에 걸쳐 아시아 신흥국에서 총 156억달러 (주식 132억달러, 채권 24억달러)의 자본이 유출

- 유럽 재정위기가 본격화된 2010년 5월 이후 국내 주식시장에서 약 1조 7,000억원의 유럽계 자금 유출이 외국인투자자금 이탈을 주도

- 과거에도 멕시코 외환위기(1994년), 아시아 금융위기(1997년) 등 신흥국으로 유입된 자금이 급격히 유출되는 과정에서 외환위기나 금융시장 혼란이 발생

(3) 총수요 위축과 재정부문의 출구전략 압력

선진국 경제는 당분간 정부의 재정지출 지속이 필요

□ 위축된 총수요가 회복되기까지는 정부의 힘이 필요

-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선진국의 내수가 크게 위축되면서 약 3~4%의 GDP 갭(수급 갭)이 발생
- 선진국 경제는 GDP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민간부문의 활력이 살아나기 힘든 상황
 - 소비가 회복되고는 있으나 당분간 가계부문의 부채조정이 지속되고 고용환경 개선도 미흡해¹²⁾ 큰 폭의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려움
 - 현 수준의 회복 속도가 유지되더라도 GDP 갭을 메우는 데만 상당 기간 소요되어 설비투자 회복도 더디게 진행될 전망¹³⁾

주요국의 GDP 갭 추이 및 전망

(단위: %)

구분	2000~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선진국	0.1	0.3	-3.9	-2.8	-1.9
미국	0.1	0.1	-3.8	-2.0	-1.0
유로지역 (PIGS)	0.6 1.3	1.1 1.1	-3.4 -2.8	-3.1 -3.0	-2.5 -2.6
영국	0.1	-0.3	-5.5	-5.0	-3.9
일본	-1.0	-1.6	-7.1	-5.7	-4.2

주: PIGS의 GDP 갭은 각국의 GDP 갭을 GDP 규모 기준으로 가중 평균한 수치, 2010년과 2011년은 전망치

자료: IMF (2010. 4.). World Economic Outlook.

□ 이 때문에 지금까지 유럽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는 위기 당시 추진한 경기부양책을 지속하며 경기회복을 지원

¹²⁾ 미국의 경우 2010년 들어 실업률이 소폭 낮아지기는 했지만 10%에 육박하는 수준이고, 유로지역의 실업률은 10%를 초과

¹³⁾ 미국의 설비가동률은 70% 초반 수준으로 리먼브러더스 사태 당시(78%)에 비해 약 5%p 낮은 상태이고, 일본도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전의 90% 수준

- 미국은 GDP 대비 10~11%의 재정적자를 기록하면서도 예정된 경기부양책 (감세 포함)을 실시

· 일본도 아동수당 등 당초 계획한 경기부양책의 상당 부분을 지속¹⁴⁾

재정부문의 출구전략이 앞당겨지면서 실물경제를 압박할 가능성

□ 그리스¹⁵⁾ 재정위기를 계기로 재정건전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재정부문의 출구전략이 앞당겨질 가능성

- 이미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부가가치세(소비세) 인상 움직임이 가시화

· 재정위기의 진원지인 그리스는 2010년 3월부터 부가가치세율을 19%에서 21%로 인상¹⁵⁾

-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국가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재정지원 부담이 늘어난 독일, 프랑스 등 여타 EU 국가도 재정긴축이 불가피

· 독일은 그리스 구제금융을 위해 지난 5월 230억유로를 지원하기로 한 데 이어 EU 재정안정화기금에도 1,230억유로를 보증하기로 결정

□ 재정건전화에 대한 부담 증가로 인해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회복 속도도 둔화될 가능성

- 경기회복이 본격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재정건전화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한다면 경기회복 속도가 둔화될 우려

· 유럽에서 안정성장협약 의무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디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상호작용을 일으켜 재정적자가 오히려 악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도 있음¹⁶⁾

¹⁴⁾ 민주당이 정책공약으로 내걸었던 휘발유 관련 특소세 폐지, 고속도로무료화 정책 등 일부는 무산

¹⁵⁾ 그리스는 재정긴축 프로그램을 통해 21%인 부가가치세율을 23%로 추가 인상하고, 주류와 담배세, 유류세 등 간접세를 10%p 인상하기로 결정

¹⁶⁾ De Grauwe, P. (2010. 5. 6.). When Financial Markets Force Too Much Austerity. Center for European Policy Studies.

2. 세계경제의 플러스 요인

- ① 중국경제의 안정적 성장: 자산 거품붕괴 가능성이 낮아 안정 성장 유지
- ② 미국경제의 회복세 지속: 민간 자생력의 점진적 회복으로 선진경제 버팀목
- ③ 국제공조체제와 관리통화제도: 국제공조체제 가동으로 위기 대응력 확보

(1) 중국경제의 안정적 성장

경기부양과 수출회복으로 안정적 성장세 유지

- 2010년에도 중국경제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내수부문의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는 추세
 - 2009년 1/4분기 6.2%를 저점으로 2010년 1/4분기 11.9%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2009년 하반기 이후 내수부문의 성장률이 지속 둔화
 - 2009년 하반기 이후 금융부문의 미세조정이 시작됨에 따라 소비와 투자의 증가세가 감소
- 반면, 확장적 재정정책과 수출호조로 성장률은 2009년의 8.7%를 상회¹⁷⁾
 - 2010년 예정된 약 3조위안의 경기부양 재정정책¹⁸⁾이 무리없이 추진 중
 - 대규모 경기부양정책에도 불구하고 2009년 GDP 대비 정부부채는 30%, 재정적자는 2.2%로 재정건전성이 양호
 - 유럽 경기부진으로 對유럽 수출감소가 예상되나 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 2010년 수출은 전년대비 17% 증가할 전망으로¹⁹⁾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4.8%p에 이를 것으로 추정

¹⁷⁾ 2010년 경제성장률은 9.8%를 예상

¹⁸⁾ 2009~2010년 2년에 걸쳐 집행되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은 총 5.6조위안 규모

¹⁹⁾ 2010년 1~4월 중국의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9.2% 증가

- 유럽 재정위기로 對유럽 수출이 2008년 수준으로 하락하더라도 수출 감소 폭은 500억달러로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4.6%p 수준을 유지²⁰⁾

부동산 거품붕괴 가능성은 미미

□ '물가상승→ 금리인상→ 부동산 가격의 급락'이 발생할 경우 중국경제가 급랭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

- 정부의 물가안정책²¹⁾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의 급등 및 빠른 물가 상승세가 지속

- 2009년 7월 이후 부동산 가격상승률(전년동기 대비)은 12~15%

- 2010년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로 금리인상의 기준점인 3%선에 근접

- '부동산 가격의 하락 → 정부 재정수입 감소²²⁾, 은행의 부동산 대출 부실화 → 재정긴축, 신용경색'의 연쇄 반응 가능성이 존재

□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나 부채비율이 낮고, 거품형성 기간이 짧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충격은 제한적일 전망

- 최근 부동산 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중국의 가계부채 비율²³⁾이 36%로 낮아 부동산 가격하락을 감당할 것으로 예상

- 과거 일본의 1990년, 미국의 2007년 부동산 거품이 붕괴할 시점의 가계부채 비율은 모두 130% 수준→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는 투매를 유인하여 거품이 붕괴

²⁰⁾ 수출의 감소는 수입의 감소도 유발하므로 수출의 감소가 반드시 순수출의 감소를 의미하지 않음

²¹⁾ 2010년 들어 은행 지급준비율을 0.5%p 3차례 인상하고, 분기별 대출 총액제도 등을 운영,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책은 1가구 2주택 최소 중도금 40%로 인상, 대출금리 인상, 1가구 3주택 대출 금지

²²⁾ 정부의 재정수입에서 토지매각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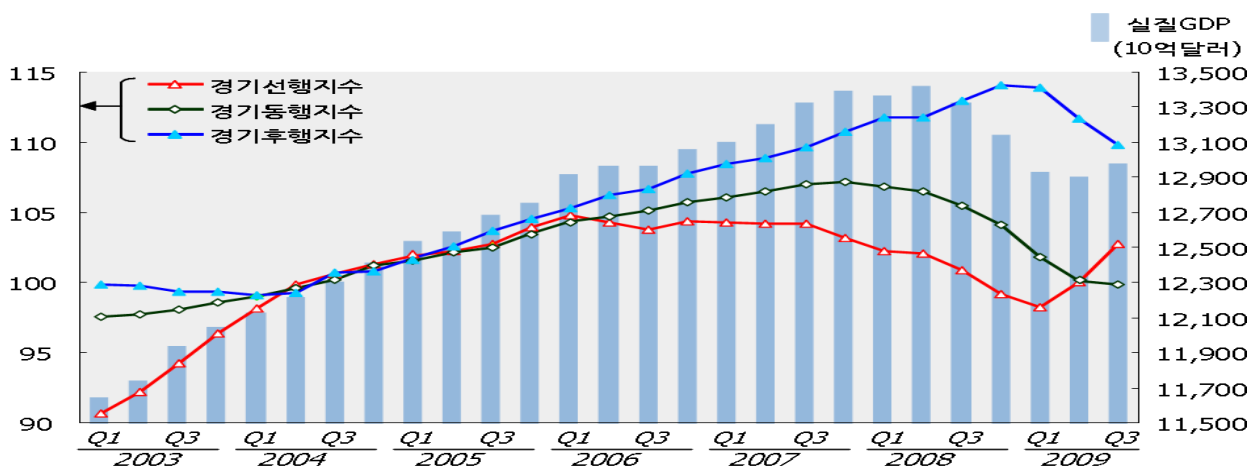
²³⁾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

(2) 미국경제의 회복세 지속

세계경제 향방은 미국경제가 좌우

- 미국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美 경제의 안정적 성장 없이는 세계경제의 본격적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위상 저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2009년 세계 GDP의 26.4%, 세계 수입의 12.8%를 점유하는 세계경제의 핵심 엔진
 - 향후에도 달러 기축통화체제의 기본 틀이 유지될 것이므로 국제금융 질서의 안정을 위해서도 미국경제의 회복이 필요
 - 美 경제흐름은 국제금융시장의 투자심리에 결정적 영향력을 발휘
- 2010년 1/4분기까지 미국은 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
 - 2008년 3/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크게 위축되었던 미국경제는 1년 만인 2009년 3/4분기 2.2%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
 - 경기순환을 가늠하는 핵심지표인 경기선행지수는 2010년 4월 109.3으로 3월 대비 0.1% 소폭 하락하기까지 2008년 3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

미국 경기 선행, 동행 및 후행 지수와 GDP 변화 추이



자료: Thomson Reuters, Datastream.

일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 재정적자 확대와 높은 실업률 등은 美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

- 美 정부의 재정상태가 신용위기, 경기침체 등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악화

·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2010년 GDP 대비 10.6%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향후 5년간 절대 규모가 총 5.1조달러에 달할 전망

- 경제회복과 함께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있지만 9% 대 후반의 높은 실업률은 여전히 美 경제의 '태풍의 눈'²⁴⁾

□ 그러나 신용경색 완화, 소비지출 개선, 주택판매 회복 등 민간 자생력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어 경기 재침체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

- 기업투자 증가에 따른 고용증대, 주가상승에 따른 부의 증가는 가계의 소비심리를 개선하여 정부의 경기부양 효과 축소를 보완

· 2010년 4월 미시간大 소비자 심리지수가 65.1을 기록하여 상승세를 유지한 가운데, ISM 제조업지수도 전월보다 3.8p 상승한 40.1을 기록²⁵⁾

-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美 국채금리에 이어 모기지 금리가 연쇄적으로 하락하면서 美 주택시장 경기가 바닥을 탈피하며 회복 국면에 진입

· 유럽發 금융위기로 글로벌 투자자금이 미국으로 몰리면서 5월 중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4.8%대로 하락²⁶⁾

· 2010년 5월 주택시장 지수는 2007년 8월 이후 최고치인 22를 기록

²⁴⁾ 2010년 4월 현재 실업률은 9.9%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낮추기 위해서는 매년 경제 성장률을 5% 수준까지 끌어 올려야 하는 상황으로 쉽지 않은 과제

²⁵⁾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²⁶⁾ 주택시장지수는全美 주택건설업협회가 현 주택경기 동향과 향후 예상되는 주택시장 여건을 설문 조사한 뒤 이를 지수화하여 발표

(3) 국제공조체제와 관리통화제도의 힘

국제 협력 메커니즘 작동

□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세계 각국은 위기극복을 위해 국제공조 시스템을 구축

- 세계경제는 금융과 재정 정책의 국제공조에 힘입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

· 제로금리 정책, 양적 완화 등을 통해 금융불안을 진정시키는 동시에 적극적인 재정지출과 감세 등을 통해 경기를 부양

- 최근 그리스 재정위기에 직면해서 EU와 IMF가 공동으로 7,500억유로에 달하는 대규모 구제금융 패키지를 마련

· 위기가 확산되면서 당초 450억유로(2010년 4월)였던 구제금융 패키지를 1,100억유로(5월 3일), 7,500억유로(5월 10일)로 확대

- G20 체제가 가동되어 종전 선진국(G7) 위주의 세계경제질서 형성 메커니즘에 신흥국도 참여하게 됨으로써 보다 광범위한 국제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토대가 구축

□ 그리스²⁷⁾ 재정문제가 글로벌 금융불안과 실물경제에 미칠 파장이 우려되면서 금융부문의 출구전략에서도 국제공조 움직임이 가시화

- 그리스 사태가 확산된 4월 이후 더블 딥 가능성이 우려되고, 경기가 위축될 경우 생겨날 재정위기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금융부문 출구전략에 더욱 신중해지는 분위기

· 2010년 5월 10일에는 ECB가 시중에서 국채 매입을 결정하고 FRB는 지난 2월 1일 종료하였던 6개 중앙은행 간 달러 스와프 계약²⁷⁾을 재개하는 등 그간 해제과정에 있던 비상조치를 재도입

²⁷⁾ FRB, ECB, 영란은행, 캐나다은행, 스위스은행, 일본은행의 6개 은행 간 국제공조로 취해진 긴급 달러 공급 조치(당초에는 리먼브러더스사태 직후 2008년 9월 18일 도입되었다가 2010년 2월 1일 종료)

- 글로벌 경제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재자로서 미국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어 향후 정부 간 정책조율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그리스 구제안을 둘러싸고 EU 국가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미국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 美 오바마 대통령은 獨 메르켈 총리, 佛 사르코지 대통령과 유선 대화를 실시해 7,500억유로의 구제금융 패키지 도출에 촉매 역할
 - 정부 간 협력 강화로 향후 글로벌 경제문제 해결에 있어 국제공조의 가능성이 확대
 - 미국은 그간 글로벌 금융위기로 실추된 위상을 회복하는 기회로 국제공조체제를 활용

관리통화제도의 힘

- 과거 1929년 대공황 당시의 금본위제와는 달리 현재는 관리통화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위기대응을 위한 국제공조가 용이하게 전개
 - 금본위제도하에서는 중앙은행의 재량에 따른 통화증가에 한계
 - 관리통화제도를 채택한 경우에는 재량적인 통화정책 운용이 가능하여 양적 완화를 통한 신용경색 해소와 경기방어에 유리

대공황과 현 글로벌 금융위기: 통화제도와 위기대응







- ▷ 1929년의 대공황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신용경색과 시장신뢰 위기, 이로 인한 실물경제 침체 발생 등에서는 유사한 모습을 보였으나, 위기 지속 기간에 있어서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남
 - 과거 공황기에는 금본위제 때문에 통화량의 증가에 한계가 있어 신용경색 해소에 어려움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각국은 양적 완화로 유동성 공급을 늘려 시장신뢰를 회복하고 심각한 위기상황을 비교적 단기간에 수습
 - 금융위기 발생 이후 실물경제 하락 지속 기간이 대공황은 3년인 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1년에 불과

3. 종합평가

더블 딥 가능성은 낮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흐름은 둔화

- 유럽 재정위기로 세계경제가 더블 딥에 빠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 중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이 동아시아 국가의 수출확대를 통해 세계경제의 회복을 견인
 - 미국경제의 회복 지속이 세계경제의 재침체를 억지하는 역할을 수행
- 그러나 그리스발 재정위기의 파장이 간헐적으로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하면서 실물경제에도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존재
 - 그리스 사태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고 주변국으로 파급되면서 간헐적인 글로벌 금융불안을 야기
 - 유럽경제의 침체가 세계교역 위축을 야기하여 세계경제에 부정적
 - 금융규제 강화 움직임도 가세하여 금융기관의 신용공급 위축과 신흥국 금융불안을 고조
 - 총수요가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정부문의 출구전략 압력도 경제회복을 지연

2010년 하반기 이슈에 대한 종합 평가

세계경제 이슈		영향 및 평가	
마이너스 요인 (暗)	유로지역 경기 침체	유로지역 부진, 세계교역 위축	 (영향 강)
	글로벌 신용경색	신용 위축, 신흥국 금융불안	 (영향 중)
	총수요 위축과 재정건전화 압력	실물경제 회복 지연	 (영향 약)
플러스 요인 (明)	중국경제의 안정적 성장	동아시아 수출 및 세계경제 견인	 (영향 중)
	미국경제의 회복세 지속	선진국 경제의 버팀목	 (영향 중)
	위기대응 시스템 작동	위기 시 국제공조 기대	 (영향 강)

Ⅲ.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경로를 원화환율, 교역조건, 세계경기의 3대 핵심변수를 중심으로 파악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의 한국경제 파급경로



① 환율불안은 부정적이나 환율상승은 긍정적 요인

- 외환시장의 불안 재연으로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안전자산 선호현상 강화에 따른 원화가치 하락이 부정적 효과를 상쇄

- 환율의 변동성 확대는 주가 변동성을 확대할 뿐 아니라 수출기업의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수출 및 투자에 부정적 요인

- 2010년 1/4분기 중 수출기업의 66.7%가 원화환율 불안을 경영상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목²⁸⁾

²⁸⁾ 이재우, 이지아 (2010. 4.). "2010년 1분기 수출기업체감지수 및 수출기업 애로사항." 한국수출입은행.

- 원화가치 하락은 외화유출에 따른 외환위기 위험이 낮은 상황²⁹⁾에서 수출증대 요인으로 작용하여 환율변동의 단기적 충격은 중립적
 - 유로화 약세는 한국의 對유럽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나, 안전자산 선호 강화에 따른 원/달러 및 원/엔 환율의 상승은 수출에 긍정적

② 교역조건에 대한 영향은 중립적

- 일시적인 달러가치 상승 및 원화가치 하락은 교역조건³⁰⁾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나,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이 교역조건 악화를 방어
 - 교역조건 악화는 실질국민총소득(GNI)³¹⁾의 감소를 초래해 소비를 비롯한 내수부진을 초래할 우려
 - 그러나 글로벌 달러 강세에 따른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약세는 수입물가를 하락시켜 교역조건 악화를 방지
 - 회귀분석 결과 교역조건은 원/달러 환율(추정계수값 -0.01)보다 원자재 가격(추정계수값 -2.14)에 더 민감하게 반응³²⁾

순상품 교역조건 회귀분석 결과

구 분	상수	원/달러 환율	CRB 현물가격지수	반도체 수출단가
추정 계수 (t-값)	189.3 (15.7)	-0.01* (-1.9)	-2.14 (-11.9)	0.02 (12.9)

주: 1)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그 외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2) 반도체의 경우 세계적으로 공급능력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어 수출단가가 환율이나 원자재 가격과는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특징이 있으며, 한국의 수출단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므로 별개의 설명변수로 설정

²⁹⁾ 2010년 4월 말 외환보유액은 2,788.7억 달러로 사상 최고 수준이며, 2010년 3월 말 단기외채비율(단기외채/외환보유고 비율)도 56.8%로 2008년 말의 74.5%에서 17.7%p 하락
³⁰⁾ 교역조건(순상품교역조건=수출단가지수/수입단가지수×100)은 수출 1단위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으로 한 국가의 해외상품에 대한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
³¹⁾ 실질GNI는 실질GDP에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을 합한 소득지표로, 생산활동을 통해 획득한 소득의 실질 구매력
³²⁾ IT 제품 및 중간재의 교역 비중이 높아 수출가격 조정이 쉽지 않은 반면,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아 수입단가가 원자재 가격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

③ 對EU 수출 감소는 미국, 중국 등의 경기 회복세가 보완

□ 유럽 재정위기로 對EU 수출 둔화가 우려되나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과 미국 등 주요국의 양호한 경기흐름은 수출 회복세를 지지

- 2010년 EU의 성장률이 1%p 하락하더라도 그 외 주요국의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는 한, 한국수출은 약 63억달러 감소하는 데 그칠 전망

· 이는 2009년 한국 명목GDP(8,329억달러)의 0.8% 수준으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감내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

·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對EU 수출의 비중 및 수출기여도가 감소하는 등 무역상대국으로서 EU의 중요도가 하락 추세

-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고성장 지속과 미국의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에 힘입어 이들 국가로의 수출호조가 對EU 수출 둔화를 보완

주요 국별 수출 기여도 및 비중


(단위: %, %p)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월
총수출	17.4	23.1	27.0	-9.9	-25.2	-21.1	-17.6	11.7	34.4
EU	2.5 (15.2)	1.0 (13.3)	2.2 (13.3)	-2.5 (13.6)	-4.9 (13.7)	-2.8 (13.3)	-3.9 (11.4)	0.9 (13.1)	1.7 (11.6)
미국	-0.4 (11.2)	0.7 (10.8)	1.1 (10.0)	-0.7 (12.3)	-2.8 (11.2)	-2.5 (10.5)	-1.5 (10.4)	-1.5 (9.7)	3.2 (10.6)
일본	0.9 (7.0)	1.2 (6.6)	1.0 (6.2)	-0.8 (7.0)	-2.4 (6.2)	-2.2 (5.7)	-1.1 (6.2)	-0.4 (5.9)	1.8 (5.8)
중국	4.5 (22.2)	7.1 (22.9)	5.0 (22.3)	-5.3 (18.8)	-5.6 (22.2)	-4.7 (23.2)	-1.5 (25.1)	8.6 (24.5)	12.5 (26.0)

주: 총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수출 증가율, () 안은 각 지역별 수출의 비중

자료: Kita.net

上高下低의 경기흐름이 심화될 가능성에 대비

- 세계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한국경제의 더블 딥을 발생시킬 만한 위험 요인은 아니나, 국내 금융 및 외환 시장의 불안 확대와 수출감소로 경기흐름의 上高下低 현상을 심화시킬 가능성은 상존
 - 하반기 글로벌 리스크 요인이 강화되지 않더라도 2010년 한국경제 전기 대비 성장률은 1.4%(상반기)에서 0.3%(하반기)로 둔화될 전망
- 따라서 글로벌 금융불안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거시정책 운용의 원칙을 확립할 필요
 - 국내 외국인 자금 이탈 및 금융회사의 외화유동성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
 - 국채 및 외국인 대출 자금의 만기가 집중³³⁾되어 있는 경우 정책당국이 국채만기를 직접 분산하거나, 은행의 대출 자금 만기 분산을 유도
 - 국내 외화유동성 또는 외화자금시장이 악화될 경우 일부 외환보유액을 국내 스와프시장에 공급하여 시장안정을 도모
 - 경제회복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건전성을 강화³⁴⁾하는 방향으로 출구 전략을 실시
 - 그리스 재정위기를 他山之石으로 삼아 경제위기 재발 시 경기부양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필요
 - 단,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에 집중하는 노력의 지속을 통해 재정건전성 강화로 인한 경기둔화를 방지 

³³⁾ 2010년 3월 말 현재 단기외채는 2009년 말 대비 46.6억달러 증가한 1,546.2억달러

³⁴⁾ 유럽발 재정위기의 대두로 인해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자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

【 지표로 보는 경제 Trend 】

< 1일 지표 >

		5. 25	5. 26	5. 27	5. 28	5. 31
환율	원/달러(종가기준)	1,250.00	1,253.30	1,224.00	1,194.90	1,202.50
	엔/달러(뉴욕시장)	90.130	90.350	89.980	90.945	91.025
	달러/유로(뉴욕시장)	1.23440	1.23440	1.21710	1.23540	1.22830
금리	회사채(3년AA-, %)	4.40	4.44	4.44	4.46	4.45
	국고채(3년, %)	3.59	3.61	3.60	3.61	3.58
	CD (91일, %)	2.45	2.45	2.45	2.45	2.45
	LIBOR (3개월, %)	0.53625	0.53781	0.53844	0.53625	..
국제 원자재 가격	두바이(S, \$/배럴)	..	69.19	70.85	..	73.32
	WTI(S, \$/배럴)	..	70.94	74.54
	CRB 현물가격지수	427.55	428.20	424.74	424.66	..
주가지수(KOSPI, 종가)		1,560.83	1,582.12	1,607.50	1,622.78	1,641.25
한국 5년만기 CDS 프리미엄		170	151	132	134	133

< 월별 지표 >

	2008년	2009년	2010.1월	2010.2월	2010.3월	2010.4월	2010.5월
제조업생산 증가율 ¹⁾	3.4	-0.9	38.9	19.6	23.4	20.5	..
평균가동률	77.5	74.6	78.9	80.3	82.4	82.2	..
서비스업생산 증가율	3.6	2.0	4.4	7.3	5.5	3.8	..
실업률	3.2	3.6	5.0	4.9	4.1	3.8	..
실업자(만명)	76.9	88.9	121.6	116.9	100.5	93.4	..
총취업자 수(만명)	2,357.7	2,350.6	2,286.5	2,286.7	2,337.7	2,392.4	..
소비자물가 상승률	4.7	2.8	3.1	2.7	2.3	2.6	2.7
생산자물가 상승률	8.6	-0.2	2.8	2.4	2.6	3.2	..
생활물가 상승률	5.4	2.1	3.8	3.4	2.9	3.0	3.0
수출(억달러, FOB) ²⁾	4,220.1	3,635.3	307.4	331.9	374.4	394.3	..
(증감률)	(13.6)	(-13.9)	(45.5)	(30.7)	(34.2)	(30.0)	..
수입(억달러, CIF)	4,352.8	3,230.9	314.4	310.0	354.8	353.8	..
(증감률)	(22.0)	(-25.8)	(26.3)	(37.2)	(48.3)	(42.2)	..
외환보유액(억달러)	2,012.2	2,699.9	2,736.9	2,706.6	2,723.3	2,788.7	..

1) 통계청 (2010. 5. 31.) “2010년 4월 산업활동동향” 에 의거하여 작성

2) 관세청 (2010. 5. 17.) “2010년 4월 수출입 동향” 에 의거하여 작성

< 분기 지표 >

	2008년	2009년	2009년 2분기	2009년 3분기	2009년 4분기	2010년 1분기	2010년 2분기
GDP 성장률 ¹⁾	2.3	0.2	-2.2	1.0	6.0	7.8	..
민간소비	1.3	0.2	-1.0	0.7	5.8	6.2	..
설비투자	-1.0	-9.1	-17.3	-7.0	13.3	28.8	..
건설투자	-2.8	4.4	5.1	4.4	5.0	1.9	..
SERI 소비자태도지수 (연간은 연말 기준)	38.5	53.2	48.9	52.6	53.2	51.9	52.7
SERI 경제행복도지수 (연간은 연말 기준)	0.754	0.665	0.635	0.638	0.665	0.741	..
개인금융자산(조원) ²⁾	1,683.7	1,995.6	1,829.7	1,917.5	1,995.6
개인금융부채(조원)	802.3	854.8	819.7	836.8	854.8
재정수지(조원)	11.9	-17.6	-28.0	-25.7	-17.6
경상수지(억달러)	-57.8	426.7	131.0	104.0	105.6	13.4	..
총대외지불부담(억달러) ³⁾	3,779	4,019	3,786	3,974	4,019	4,098	..

1)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2) 개인금융자산 및 부채는 자금순환계정 기준

3) IMF, World Bank 등 9개 국제기구가 마련한 새로운 편제기준, 분기별 발표

< 주요국 통계 >

(전년동기 대비, %)

		2008년	2009년	2009년 1분기	2009년 2분기	2009년 3분기	2009년 4분기	2010년 1분기
미국	GDP 성장률 ¹⁾	0.4	-2.4	-6.4	-0.7	2.2	5.6	3.2
	실업률 ²⁾	5.8	9.3	8.6	9.5	9.8	10.0	9.7
	소비자물가 ²⁾	3.8	-0.4	-0.4	-1.4	-1.3	2.7	2.3
일본	GDP 성장률 ¹⁾	-1.2	-5.2	-15.9	7.4	0.5	4.2	4.9
	실업률 ³⁾	4.0	5.1	4.8	5.3	5.3	5.2	5.0
	소비자물가 ³⁾	1.4	-1.4	-0.3	-1.8	-2.2	-1.7	-1.1
유로 지역	GDP 성장률 ¹⁾	0.6	-4.1	-2.5	-0.1	0.4	0.0	0.2
	실업률 ³⁾	7.5	9.4	9.1	9.4	9.8	9.9	10.0
	소비자물가 ²⁾	3.3	0.3	0.6	-0.1	-0.3	0.9	1.4
중국	GDP 성장률 ¹⁾	9.6	8.7	6.2	7.9	9.1	10.7	11.9
	실업률 ²⁾	4.2	4.3	4.3	4.3	4.3	4.3	4.2
	소비자물가 ²⁾	5.9	-0.7	-1.2	-1.7	-0.8	1.9	2.4

1) 미국, 일본, 유로지역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연율, 중국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2) 실업률 및 소비자물가의 경우 분기 말 기준

3) 2010년 1분기 일본의 실업률과 소비자물가, 유로지역의 실업률은 2010년 2월 기준